

바다를 닮은 제주해녀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해녀는 제주 여성문화를 대표하는 유산이다. 해녀들은 관리들의 수탈에 한 많은 삶을 살기도 했지만, 불의에 맞서 항일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해녀박물관에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해녀들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다.



해녀박물관길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33-5 ~ 구좌읍 세화리 1476-17(약 0.4km)

구좌로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29-5 ~ 구좌읍 하도리 2778-5(약 2.4km)

충렬로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304-1 ~ 구좌읍 세화리 2061(약 2.2km)

평대서길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939-1 ~ 구좌읍 평대리 1957(약 0.4km)

대수길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976-2 ~ 구좌읍 평대리 2033-1(약 0.4km)

세화1길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24-1 ~ 구좌읍 세화리 3643(약 0.4km)

세평항로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48-1 ~ 구좌읍 세화리 3641(약 0.5km)

해녀박물관길 | 해녀박물관



해녀박물관 내부 모습

하도리의 구좌로에서 해맞이해안로로 이어지는 **해녀박물관길**은 제주해녀박물관을 지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해녀는 제주 여성문화의 대표적인 유산이다. 해녀 박물관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제주해녀들의 삶과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곳이다. 해녀는 옛날 문헌에도 자주 등장할 만큼 잘 알려져 있었다. 그 기록 중에는 해녀와 전복에 얽힌 사연이 전한다.

제주에서 진상품으로 바쳤던 전복은 해녀들이 손수 바닷속에서 따다가 바쳐야 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거기다 중간에 관리들이 착취라도 하게 되면 몇 번이고 바다에 다시 들어가야 했다. 그러니 해녀들의 몸은 성할 날이 없었다. 제주에 왔던 유배인들의 기록을 보면 관아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전복을 거두어 가기 때문에 1년 내내 일을 해도 모자랄 정도였으며, 진상품의 수를 맞추기 위해 돈을 주고 전복을 사야했던 아이러니한 이야기도 전한다. 영조는 이런 해녀들의 고통스런 삶을 접하고 공물에서 전복을 제외시키기도 했다.

20세기 초에 이르면 해녀들은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까지 원정 물질을 나가서 집안의 생계를 이어나갔다. 척박한 땅을 가진 제주의 환경에서 해녀들은 바다를 터전으로 강인한 정신을 보여줬다. 오늘날 해녀는 제주가 지켜나가야 할 문화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해녀박물관은 제주의 해녀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구좌로(해녀항쟁로) | 해녀항쟁

구좌로는 구좌읍 지역의 중추적인 도로라는 의미이다. 18세기 중반까지 제주의 동북쪽은 행정구역상 좌면(左面)에 속했다. 그러다 조천읍 지역을 신좌면으로 분리하면서 구좌면으로 불리게 된 것이 구좌읍 명칭의 유래이다. 이 길은 일제강점기에 해녀들의 항일운동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해녀항쟁로라는 별칭이 붙은 명예도로이기도 하다. 해녀들의 항

일운동은 일본인 상인에게서 뇌물을 받은 해녀어업조합이 하도리 해녀들의 해산물 가격을 아주 싼값에 구매하도록 해 준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해녀들은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물질할 때 사용하던 빗창을 들고 일어나 일본의 수탈에 항거했다. 하도리의 해녀들이 먼저 시위에 나섰고, 이후에 수천 명에 이르는 인원이 참여할 정도로 큰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확장되었다. 해녀항쟁은 조천만세운동과 무오사 항일운동과 더불어 제주의 3대 항일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항쟁을 주도한 하도리 출신 해녀 부춘화와 김옥련은 항일운동의 주역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해녀박물관 남쪽에는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이 세워져 해녀들의 항일정신을 기리고 있다.

충렬로 | 구좌읍 충훈묘지

충렬로는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가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상징하는 도로명이다. 항일운동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이다. 제주에는 이 분들을 기리고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 충훈묘지가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다. 충렬로 인근에는 구좌읍 충훈묘지가 조성되어 있어 6·25전쟁에서 전사한 분들의 유해가 묻혀있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제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가했다. 특히 초창기 해병대는 제주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했다고 한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도 제주 출신 해병대의 용맹함이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구좌읍 충훈묘지

평대서길 / 대수길 | 평대리

평대서길은 평대리 서쪽을 지나는 길이다. 평대리 이름은 ‘평평한 언덕’이라는 뜻으로 제주어로는 ‘뱅디’라고 불렸다고 한다. 평대리의 지형이 넓은 평지로 되어 있어서 그런 이름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대리의 마을에는 동동, 중동, 서동이 있다. 그 중에 서동에는 대수상동, 대수하동, 탈전동이 있었는데 4·3사건으로 탈전동이 사라지면서 웃동네인 대수상동과 아랫동네인 대수하동이 남아있다. 대수길은 이 대수마을에서 따온

이름이다. 대수상동 해안가에는 평대리에서 가장 큰 용천수였던 대수굴물이 있어 마을 사람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했었다고 전한다.

평대리에는 부대각이라는 장사의 전설이 전해온다. 부대각은 여느 장사들처럼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 있었는데 부모가 역적으로 몰릴 것을 염려하여 날개를 잘라버렸다고 한다. 부대각은 힘도 썩지만 지혜로웠다고 한다. 왜적들이 마을에 침입해 온다는 소식이 퍼져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만 있자, 부대각은 집집마다 불을 떼고 남은 재들을 모아 해안가에 뿌리고 말의 꼬리에 빗자루를 달아매서 그 위를 달렸다. 그러자 하늘에 재가 가득차서 왜적들이 군사가 많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돌아가버렸다. 지혜를 발휘해 사람들을 지켰던 것이다. 평대리에는 부대각의 묘가 남아있으며, 그 후손들이 지금도 평대리에 살고 있다고 전한다.

세화1길 / 세평항로 | 세화리

세화리(細花里)는 옛날 ‘가는곳’이라 불리던 마을이라고 한다. 이런 세화리의 이름을 반영해서 **세화1길**을 비롯한 세화리 마을 길 이름을 부여했다. 세화리에는 1931년 한응호 목사가 제주에 동학당, 서학당, 남학당, 좌학당 등 4개의 학당을 지을 때 좌학당을 세웠던 곳이라고 한다. 흔히 서당이라 부르던 학당은 어린이들의 초등교육을 담당하던 기관이었다. 학식을 갖춘 여러 훈장들이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기에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다. 교육에 대한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전해내려와 현재 세화리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들어서 있다. **세화1길**과 나란히 이어진 **세평항로**는 세화, 평대항 포구와 연결되는 길이다. 포구 옆에 펼쳐진 세화해변은 아름다운 바다색과 함께 제주 바다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세화해변에는 모래사장에서 솟아나는 용천수가 있다. 촛물이라고 부르는 이 물은 썰물 때는 모래 속에서 물이 솟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밀물 때는 주변이 모두 바다에 잠겨버린다. 포구 인근에는 세화민속오일시장이 있어 매달 5일과 10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인다.